

安東大宗會報

海東名將傳

遼東伯編 (2)

大提學文獻公 洪良浩 原作

會 會 會
明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發行處
서울·東大門區徽慶洞112-49
安東金氏大宗會中央本部
電話: 244-3717
對普口座: 010983-31-0513119
私書函: 서울 清涼里 郵局 137號

(非賣品)

이 會報는 通常會費 年間 2千원 以上을 納入한 宗親에게 無償으로 配付 하오니 未納한 宗親께서 是 冊을 納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잔치를 베풀어 놓고 술을 마시며 놀다가, 그가 술이 반쯤 취했을 때, 절벽 밑으로 밀어 버리니, 그는 떨어지지 않아서 아직 연못에 빠지지 않았을 때, 몸을 뒤치며 절벽에 붙어 나는 듯이 뛰어 올라 왔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은 났이 빠지지 다시 되었는데, 제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모두 겁내지 말라. 내 본래 착하지 못하였던 까닭으로 이런 일을 당한 것이다.”

이래서 그는 곧 마음을 고치고, 판사처럼 되었다. 심하(深河)의 싸움에 김응하 장군을 따라 출전하여 적을 많이 죽이고, 최후까지 잘 싸우다가 힘이 다하여 전사하였다.

후손들은 철현의 화상을 그려서 김응하 장군의 화상 밑에 놓아두고, 봄과 가을의 제사에 상식을 올렸다. 그런데, 인조(一四)년 병자(丙子...一六三六) 호란 때 청나라 사람이 이를 불태우고, 뒤에 청나라는 글을 보내 화친을 청하여 우리 종사관 정응정(鄭應井)·이장배(李長培) 등을 보내 왔는데, 그들은 청나라 사람의 말을 이렇게 전하였다.

“좌영(左營)의 한 장수가 칼을 들고 적을 수 없이 쳐 죽였는데, 그 자신도 몸에 무거운 갑옷을 입었으나, 여기에 화살이 수 없이 박혀서, 마치 고슴도치와 같았다. 이때 한 군사가 칼을 들고 뒤로부터 쏘았는데, 그는 큰 칼을 잡고서 앞으로 쓰러졌으나, 끝내 그 칼을 버리지 않았다. 이 사람이 곧 김응하 장군이다.”

또 이 장배(李長培)도 한 청나라 사람의 말을 전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우리는 장수의 명령에 따라서, 명나라 군사와 조선 군사의 전사한 시체를 거두어 묻었는데, 다 썩었으나 오직 한 시체만은 산 것 같았고, 손에는 칼자루를 잡고 있었는데, 그가 곧 김응하 장군이였다.”

이 때 계강(桂江)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역시 선천(宣川) 사람으로 용맹이 뛰어나고, 힘이 남달리 굳세어 고을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려도 누구 하나 감히 어찌할 수 없었다. 고을 사람들은 이를 근심하여, 그를 제지하려고 길은 언덕 위의 바위에 서서, 적세 사람을 쏘아 죽였다. 그러나 적은 수 없이

충무공(忠武公) 김응하(金應河)의 아우 김응해(金應海)는 기미년(己未年...一六一九)의 도요전역(渡遼戰役) 때, 최천군수(熊川郡守)로 있다가, 비분강개하여, 따라갈 것을 청하였으나, 충무공 김응하는 이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우리 형제가 함께 죽는 것은 아무런 이로운도 없으리라.”

그는 김응하가 요동으로 출정하여 심하의 싸움에서 패하여 죽자, 몹시 원통하게 여겨 밤낮으로 상심하고 있었다. 병자호란 때, 김응해는 도원수 김자질(金自點)의 추천으로 별장(別將)이 되어 정방산성(正方山城)을 지켰다. 그 해 11월에 청나라 군사가 쳐들어 와서 바로 서울로 달려가자, 김응해는 날센 군사 셋백 명을 거느리고 큰 짐부대를 끌어서 적을 막아 싸웠다. 이때, 김응해는 수십 차례 나적과 싸워도 승부를 짓지 못하였는데, 타고있는 말이 화살을 맞고 쓰러지게 되자, 화살을 맞고 쓰러지게 되자, 할 수 없이 도보로 동산암(洞仙岩)에 의지하여 활을 삼고 서서, 적세 사람을 쏘아 죽였다. 그러나 적은 수 없이

달려들어 여러 점으로 포위함으로 그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을 것을 알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놈들아! 심하(深河)의 싸움에서 버드나무 밑에서 시늬를 부릅뜨고, 칼을 잡고 돌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형님이시다. 내 이제 힘이 다하여 내몸을 다 죽여 버릴 수 없으니, 내 무슨 면목으로 죽어서 우리 형님을 빚는단 말이냐!”

그는 드디어 칼을 빼어들고 막적인으로 뛰어들어 가서, 닥치는 대로 적을 쳐서, 많은 무리를 죽이고, 이어 스스로 목을 찌르고 쓰러졌다.

이를 본 적들은 마침내, 김응해 장군이 죽었다고 말하면 서로 물러갔다. 적이 물러간 후에 그 비장은 김응해 장군을 어지럽게 널려있는 시체를에서 찾았는데, 노엽에 부릅뜨고 있는 두 눈에 생기가 돌고 있으므로, 바로 메고 성안으로 들어가서 만금(萬金)을 들여 좋은 양을 써서 구했는데, 이때 그 갑옷 속에는 화살아홉 개가 박혀서 거의 가슴을 뚫고 있었다.

그가 되살아 났다는 말을 듣고 왕은 크게 기뻐하며, “그의 충절은 곧 형에 못하지 않다”고 칭찬하였다.

그의 벼슬은 여러번 승진되어 어영대장(禦營大將)에 이르렀는데, 그는 나이 70세가 될 때, 왕에게 글을 올려 불려날 것을 청하여 허락을 받고, 바로 고향 철현(鐵原)으로 돌아가서 밖에 다니지도 않고 있다가 세상을 마쳤다.

대개 그가 처음에 몸을 나라에 바쳐 죽으려한 것은 충성이요, 끝에 벼슬을 사양하고, 그 절개를 온전하게 하려는 것은 용맹이다. 그러나 그의 충성과 용맹은 충무공 김응하 장군의 아우로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적은 수 없이

(前號에서 계속)

그런데, 청나라 군사는 바로 좌영(左營)으로 달려들었다. 이에 김응하는 군대를 돌려하여, 피어린 싸움(血戰)을 전개하면서 군사들에게 명령하였다.

“좋은 사람은 화약을 재우고, 활은 사람을 화살을 울리거든 그 소리에 따라 일제히 공격하라.”

그리고 총격전을 전개하니, 적은 총알과 화살을 맞고 바람 앞에 참배 쓰러지듯 죽어 떨어졌다. 그런데 갑자기 북풍이 세차게 불어서, 모래와 돌이 날리고, 화약이 다 떨어져지고, 화살이 무려하게 되어 버렸다. 이렇게 되자, 적은 이러한 기회를 타고 급히 달려들어 되돌아왔다. 그래서 우리 군사는 한 모퉁이가 문란하여졌으나, 군사들은 적의 날카로운 창칼을 무릅쓰고 잘 싸워 한 사람도 헛되게 죽는 사람이 없었다.

김응하는 대세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큰 버드나무에 의지하여 큰 활로 적을 쏘아 죽이는데, 화살 하나에 적 두 사람씩 꺼꾸러뜨렸다. 그러나, 우리 군사는 거의 다 죽어 없어지고, 오직 철현(鐵賢)이란 은 가지 않고 그 밑에 엮드려 있으면서, 갑옷 속에 화살 셋백 개를 간직하였다가, 하나

씩 전해주었다. 그 화살이 다 떨어지자 철현은 “화살이 다 없어졌읍니다.”라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김응하는 곧 진칼을 빼어들고, 달리는 적을 쳐 죽였는데, 그 자신도 몸에 수십개의 창(槍)을 맞아 상처를 입었다. 이때, 그는 철현을 돌아 보면서 탄식하였다.

“너는 왜 도망하려 하지 않느냐?”

이 말에 철현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소인은 장군과 함께 싸우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응하는 끝까지 싸우다가 기운이 다하자, 버드나무에 의지하여 죽었는데, 그는 손에 칼자루를 들고 산 것처럼 서 있었는데, 노예들은 부릅뜨고 있었으므로, 적들은 감히 가까이 범하지 못하였다. 이때가 광해군(一)년 기미(己未...一六一九) 4월 4일이였다.

이렇게 무서운 혈전은 이 날부터 해가 질 무렵에 이르러까지 계속되었는데, 도원수 강홍립은 그대로 보고 구경만 하고, 부원수 김경서(金景瑞)도 구원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크게 패하는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다.

四、김충무공(金忠武公) 싸움이 끝나자, 청나라 장수 영아대(英俄兒代)는 군사를 거두어 가지고 돌아서며 감탄하며 말하였다.

“내 넓은 지역을 마음대로 돌아다녀서 싸워볼 만한 적수가 없었는데, 조선 장수의 용맹과 사나움이 이러한 줄은 생각하지 못하였다. 만약에 산마루에 있는 군사로 하여금 힘을 합하여 싸웠다면 우리는 앞뒤로 적을 만나 반드시 죽음을 면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또 명나라 유격장(遊擊將) 교일기(喬一琦)는 “조선 군사는 날카롭고 그 장수는 용맹스럽다”고 칭찬하였고, 청나라 사람들은 늘 김응하 장군이 전사한 그 버드나무 밑을 지날 때 마다 반드시 유하장군(柳下將軍)의 싸움은 무서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좋은 사나이여! 다른 날 다시 세상에 태어나거든 우리가 언제 되기를 원한다.”

김응하가 죽은 뒤에 조정에서는 그에게 영의정(領議政)의 벼슬을 추증하고, 충무(忠武)라는 시호를 주고, 사당을 세워 향사케 하고, 그 충혼비를 의주(義州)에 세웠다.

또 명나라 조정에서는 요동백(遼東伯)의 벼슬을 주고, 국고의 백금(白金) 만여냥을 내어 우리 나라에 보내면서 우대하였다. 그리고 또 철현의

1985年度定期總會開催公告

- 一、日時: 一九八五年 四月二十八日(日) 午前十一時
 - 二、場所: 清涼里 萬安亭(百貨店 七층(청량리 驛前))
 - 三、會費: 五千元(通常會費 二千元(包含))
 - 四、議案
 - 1、八四年度、決算報告 및 監查報告
 - 2、八五年度 予算案 審議
 - 3、任員改選
 - 4、其他事項
- 一九八五年 四月 一日
- 安東金氏大宗會會長 明 會白

〔전호에서 계속〕

원종은 곧 심(諫)과 상의하였는데 심(諫)도 또 이장용의 제안(提案)에 동의하였다. 그날 밤 중서성(中書省)에 상서(上書)할 문안(文案)은 심(諫)과 이장용의 손으로 초안(草案)하였다. 이장용은 그러나 다른 때와는 달리 상주(上奏)의 문안(文案)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어딘가 불안감을 느꼈다. 이장용은 자기 생각에도 자기의 하는일에 지금 완전히 자신이라는 것을 잃어버렸다.

四일 심(諫)과 이장용 두 사람이 꾸민 상주문(上奏文)을 중서성(中書省)에 보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일후에 원종은 다시 중서성(中書省)을 통하여 북계서해(北界西海) 六十城을 되돌려 달라고 출원(出願)하였다.

그러한 일이 있은후, 이틀만에 영녕공(永寧公)과 홍다구(洪茶丘) 두 사람이 원종(元宗)의 상서(上書)에 대한 세조의 회답을 휴대(携帶)하고 원종이 머물러 있는 관(館)으로 달려왔다. 홍다구의 애비 홍부원(洪福源)은 영녕공(永寧公)에게 참소(讒訴)되어 참살(斬殺)되었는데 홍다구로서는 순(紼)은 그의 애비의 큰 원수였다. 현재는 같이 관영기부군민총관(管領歸附軍民總管)으로서 동경과 반주(潘州)의 고리인을 들로 분류해서 있었는데, 서로 상대방끼리 좋은 감정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였다. 그러한 두 사람이 다 같이 사자(使者)로서 일하여 왔다는 것이 원종 부자(父子)와 이장용에게도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홍다구는 처음에 입회인(立會人)처럼 세조 옆에서 어리벅고, 순(紼)이 사자의 역할을 떠맡아 보았다. 순(紼)은 세조를 대신하여 말하였다.

「당단(鞵鞞-모고)의 법(法)에도 중대를 통해서 저례를 함한다는 말이 있다. 심(諫)이

心)에서 나온 결합(結合)이라면, 이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 있겠는가. 그러나 지금 그대들은 만일 때문에 이 나라에 와서 있지 않은가. 하루빨리 나라에 돌아가서 백성들을 잘 무마하여라. 공주(公主)의 일은 오늘 문제가 될 수 없다.」

그 자리에는 원종(元宗), 심(諫) 이장용 등 세 사람이 있었다. 원종과 심은 얼굴을 몇 번이고 꾸부리고 순(紼)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이장용은 타오르는 것같은 수치와 분노를 마음에 느끼면서 순(紼)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이 세조 자신의 입에서 전(傳)하여졌다면, 그대로 참을 수 있는데, 일찌기 고려에서 질자(質子-인질)로서 몽고에 들어가서 지금은 자국(自國)에 호의(好意)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물이 되어 버린

자의 입에서 그 말들은 참을 수 없는 분한 생각이 들었다. 이장용은 자기의 생각이 이 미치지 못한데 대하여 화가 치밀었다. 세조는 지금 고려의 태자에 공주(公主)를 출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다. 공주(公主)를 주지 않아도 고려에 대한 정책은 착착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나서 순(紼)을 대신 하여 홍다구가 이번에는 일어서서 말하였다. 「중서성에 상서(上書)해서 군마(軍馬)를 요청할 것, 그러면 황제는 즉각 들어 주시어, 곧 전후군(殿後軍)으로서도 렌카를 과전시킬 것입니다.」 순(紼)의 쪽은 세조를 대신 하여 그의 말을 전하였는데 홍다구 쪽은 자기의 말로서 그것을 말하였기에 다소 정중하였다. 이장용은 이번에는 자기의

風濤 (8) 井上靖 著 金茶會 譯

얼굴에서 피기(氣)가 없어져 가는 것을 알았다. 이런 일이 있어서 좋은 것일까. 환도(還都)를 위하여 약간의 군사(達魯花赤)는 사정관(司政官)의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병단(兵團)을 강도에 진주(進駐)시키는 것이었다.

「기타의 일에 대해서는?」 원종을 대신하여 이장용은 말하였다. 「六十성 환부(還附)의 일이 아직 남아있다. 기타의 일은 답변할 수 없는 일이라고 홍다구는 말하였다. 「공사(公事)를 위하여 수고하십시오. 황제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상주(上奏)하여 양해를 받도록 하겠읍니다.」

이장용은 이렇게 말하고 일어서었다. 일각(一刻)이라도 빨리 두 사람의 사자(使者)들을 쫓아 버리고 싶었다.

영녕공(永寧公)과 홍다구를 보내고 나간후 이장용은 원종과 태자에 이르러 자기의 獻言(언론)이 나라에 화(禍)가 되었다는 것을 사과하였다. 원종과 심(諫)은 잠깐동안 말이 없었다. 잠시후 원종은 말을 꺼냈다. 「이쪽에서 올린 상주문(上奏文)이 그대로 세조 앞에 전하여지지 않았을 것이 틀림없다. 만일 그대로 세조에게 전하였었다면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원종이 이렇게 말한 즉, 심(諫)도 또 거기에 동의했다. 이장용은 물론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었다. 모든 일은 엄히 고쳐질 것이니 세조는 사자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날 원종은 글을 올리도록 레카(軍)의 출병(出兵)을 취소하여 줄 것을 간원(懇願)하고 그대신 다루하치(達魯花赤)를 과전시켜 줄 것을 원(願)하였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좋은 것일까. 환도(還都)를 위하여 약간의 군사(達魯花赤)는 사정관(司政官)의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병단(兵團)을 강도에 진주(進駐)시키는 것이었다. 「기타의 일에 대해서는?」 원종을 대신하여 이장용은 말하였다. 「六十성 환부(還附)의 일이 아직 남아있다. 기타의 일은 답변할 수 없는 일이라고 홍다구는 말하였다. 「공사(公事)를 위하여 수고하십시오. 황제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상주(上奏)하여 양해를 받도록 하겠읍니다.」 이장용은 이렇게 말하고 일어서었다. 일각(一刻)이라도 빨리 두 사람의 사자(使者)들을 쫓아 버리고 싶었다.

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왜 이 령게 되었는지 원종(元宗) 자신도 알 수가 없었다.

第一部 사장(四章)

원종은 태자 심(諫), 이장용(李藏用) 그리고 자기와 같이 연도에 들어간 일백명의 종자(從者)와 같이 十七일에 연도를 출발하였다. 연도에 오르는 도중에 갈라진 일행 七백명의 나머지 六백명의 종자들은 동경까지 와서 거기에 서 머무르고 연도에는 들어오지 않아서 원종의 일행은 동경에서 그들과 합류하여 고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올때와 같이 눈(雪)은 매일과 같이 내리고 거기도 또 바람까지 겹쳤다. 올때와 같이 눈(雪)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올때는 일각이라도 빨리 연도에 들어갈려고 애를 썼지만 정정하였다. 그런데 귀로(歸路)에는 일행들의 고생은 말할 수 없었다. 눈에 보이는 아득한 천지는 백설(白雪)로 덮혀 버리고 냇물의 얼음이 얼지 않았다. 곳만 겨우 푸르게 보였다.

五일만에 큰사원(寺院)이 있는 성시(城市)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원종은 몸에 열(熱)이 나서 병상(病床)에 누워 버렸다. 이장용은 심(諫)과 상의한 후 원종의 병이 날 때까지 거기에서 머물기로 하였다. 하루라도 빨리 귀국(歸國)이 바람직했으나 강도의 유수는 종(棕)에게 맡겨 있으므로 별로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서경(西京)에 이미 몽구도(軍)이 진주(進駐)해 있는 현재로서는 임연이 또 다시 이심(異心)을 가질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다. 이심을 갖는다는 것은 자멸(自滅)의 위기에 있는 것이었다. 이심(異心)이 있으면 원종은 원종(元宗)이 아니라 원종(元宗)의 종(宗)이 된다. 「이것이 원종의 마음이었다.」

원종은 태자 심(諫), 이장용(李藏用) 그리고 자기와 같이 연도에 들어간 일백명의 종자(從者)와 같이 十七일에 연도를 출발하였다. 연도에 오르는 도중에 갈라진 일행 七백명의 나머지 六백명의 종자들은 동경까지 와서 거기에 서 머무르고 연도에는 들어오지 않아서 원종의 일행은 동경에서 그들과 합류하여 고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올때와 같이 눈(雪)은 매일과 같이 내리고 거기도 또 바람까지 겹쳤다. 올때와 같이 눈(雪)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올때는 일각이라도 빨리 연도에 들어갈려고 애를 썼지만 정정하였다. 그런데 귀로(歸路)에는 일행들의 고생은 말할 수 없었다. 눈에 보이는 아득한 천지는 백설(白雪)로 덮혀 버리고 냇물의 얼음이 얼지 않았다. 곳만 겨우 푸르게 보였다.

로 되어 버렸고 거기다 동경에 잔다고 해도 거기서부터는 고려진주(高麗進駐)의 전후군(殿後軍)인 도렌카(軍)와 행동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도렌카(軍)는 환도(還都)가 이루어질 때까지 개경(開京), 강도부근에 주둔할 것은 필연적 사실이었다. 환도가 완전하게 행된후 과연 천수할는지 어떻게 될는지 그것은 대단히 의문(疑問)이었다. 이제까지의 세조 후비(后)의 하는 꼴을 본다면, 그냥 그것을 거의 영구적인 주유부대(駐留部隊)로 할 정도는 다만사로 생각되었다.

원종의 병환은 이삼일내에 쾌유(快癒)되었으나 이장용은 무리를 하지 않으려고 일행을 다시 며칠동안 그 성시(城市)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 그렇게 한 어느날 밤, 이장용은 임연이 등에 등창병이 나서 죽었다는 꿈을 꾸었다. 그것은 틀림없는 꿈이었다. 꿈은 깨고 난후 이장용은 잠깐동안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꿈속에 임연의 차자(次子)인 유무(惟茂)가 나타나서 돌아가신 부친에게 참지정사(參知政事)를 추증(追贈)하여 줄 것을 애원하고 자기는 교정별감(校定別監)을 시켜달라고 구원하였다. 이장용은 유무(惟茂)에게 인도되어 별실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임연이 누워 있었는데 숨이 끊어져 있었다.

원종은 태자 심(諫), 이장용(李藏用) 그리고 자기와 같이 연도에 들어간 일백명의 종자(從者)와 같이 十七일에 연도를 출발하였다. 연도에 오르는 도중에 갈라진 일행 七백명의 나머지 六백명의 종자들은 동경까지 와서 거기에 서 머무르고 연도에는 들어오지 않아서 원종의 일행은 동경에서 그들과 합류하여 고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올때와 같이 눈(雪)은 매일과 같이 내리고 거기도 또 바람까지 겹쳤다. 올때와 같이 눈(雪)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올때는 일각이라도 빨리 연도에 들어갈려고 애를 썼지만 정정하였다. 그런데 귀로(歸路)에는 일행들의 고생은 말할 수 없었다. 눈에 보이는 아득한 천지는 백설(白雪)로 덮혀 버리고 냇물의 얼음이 얼지 않았다. 곳만 겨우 푸르게 보였다.

祝發展

安東金氏大宗會 理事 金道應 提學公派 天原郡 東面 長松里

金在玫 忠北永同郡龍山面上龍里

伸士服·禮服專問 宗親을爲한 廉價奉仕 성호라사 主 金石秀 大邱直轄市 南區 大明洞 2310-10 電話 . 27-8774

獎學基金

參百萬元 申托 清州翼元公派亨會氏美舉 清州市 石橋洞 二二五 九五에住所를 大宗會 理事 亨會宗親에서 大宗會에서 推選中에 있는 獎學財團 設立에 多 助를 與한 亨會氏美舉 申托 亨會宗親 宗親에게 意識 鼓吹에 도움이 된다 多幸이라 고 謙遜의 意를 傳하였다.

特報

大宗會理事 名會宗親失蹤

全國宗親의 擧族的 探索 促求



名會 (一名慶會)

進地下水開發會社 常務理事 尿病 症勢가 惡化되어, 앞이
인 名會 氏는 昨年 七月 下旬
頃 社務關係로 全南 地方에
出張, 七月 三十一日 아침
에 長省에서 光州 地方 現場
監督 某氏에게 “光州 市内
某處에서 만나자”는 電話를
걸고 列車 便으로 光州까지
갔는데 監督 某氏가 定刻에
約束場所에 나가 기다려도
오지않아 警察에 申告하고, 家
族과 親族들이 百方으로 찾
고 있으나 아직까지 踪蹟은
勿論 生死의 與否까지도 알
지 못하고 있습니다.
名會 理事님은 老齡에 糖
尿病 症을 患하고 계신데, 宗
親의 消息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가까운 警察官署
나, 大宗會로 連絡해 주시
기 바랍니다.

消息

- ★ 大宗會長 明會 博士는 淸州大學校 初代 總長으로서 4年間의 任期를 마치고 다시 第2代 總長으로 就任하였다.
- ★ 初代 仁川直轄市長 璨會 氏(翼元公派)는 2月 22日附로 山林廳長에 任命, 榮轉하였다.
- ★ 大檢察廳 監察部長 慶會 氏(翼元公派)는 2月 27日附로 馬山地方檢察廳 檢事長으로 任命 昇進하였다.
- ★ 淸州地方檢察廳 檢事長 東喆 氏(副使公派)는 2月 27日附로 大檢察廳에 第2部長으로 就任, 榮轉하였다.
- ★ 서울 東部檢察廳 檢事 次會 氏(翼元公派)는 2月 27日附로 大邱 高等檢察廳 檢事로 昇進하였다.
- ★ 忠淸北道 殖産局長 允會 氏(翼元公派)는 淸州市 副市長으로 榮轉하였다.
- ★ 서울 中部稅務署長 淳植 氏(提學公派)는 3月 18日附로 大邱 地方國稅廳 徵稅調查局長에 榮轉하였다.
- ★ 淸州大學校 教授 永秀 氏(都評議公派)는 2月 22日 中央大學校에서 “韓國小說의 連脈”이란 論題의 論文이 通過되어文學博士 學位를 取得하였다.
- ★ 慶熙大學 醫療院 神經外科 醫師이며, 助教授인 泰成 氏(按廉使公派)는 同大學校에서 醫學博士 學位를 取得하였다.
- ★ 지난 3月 16日 慶南山淸郡 宗親會에서는 提學公派 相宜 氏 外 男女 51名이 傳貫冊을 利用, 天原郡 並川의 提學公 以上 3代位의 壇所와 安養文英公 山所를 參拜하고, 大宗會를 尋訪한 후 서울에서 一泊, 다음날 17日에는 楊平의 翼元公 山所와 安東의 忠烈公 陵所를 參拜할 予定으로 서울을 出發하였다.
- ★ 서울特別市 綜合民願 室長 昌信 氏(都評議公派)는 市政開發擔當官室 擔當官으로 榮轉하였다.
- ★ 提學公派 龜岩公 諱忠甲 派宗中에서는 先祖妣 贈 貞敬夫人 昌平李氏(龜岩公 配位) 遺蹟碑를 墓下인 天原郡 並川面 佳田里 桃汀山 기슭에 建立하고, 아울러 大宗會 顧問이시며, 提學公派 會長으로 一生을 宗事에 獻身하신 相崗(諱利浩)公 墓碑도 建立·來賓과 後孫等 50余名이 參席하여 除幕式을 舉行하였다.
- ★ 大宗會理事이며 總務部長인 按廉使公派 斗會 氏의 先考(諱 桓演) 墓碑를 利川郡 栗面 本竹里 墓庭에 建立하고 오는 4月 7日에 除幕式을 舉行한다.
- ★ 洪城敎導所長 在鳳 氏(翼元公派)는 3月 30日附로 法務部 敎正局 保安課長으로 昇進하였다.

알립니다

一九七八年 부터 申請을 接受한 大同譜는 出版과 同時에 三、八〇〇送의 방대한 量이 計劃대로 領布 되었으나 아래와 같이 아직 引受하지 않은 宗親이 있어 數次나 督促書信을 發送하여도 住所變更으로 돌아오는 狀態로 領帙의 終決을 보지 못하고 事務處理上 莫大한 支障이 되고 있어 아오니 或 아시는 宗親께서는 速히 連絡 引受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 萬苦에 來六月 末日까지 連絡이 없을 時는 取得不應으로 認定하고 希望하는 宗親에게 引渡할 것이오니 諒知하시기 바랍니다.

◎ 大同譜未引受者 名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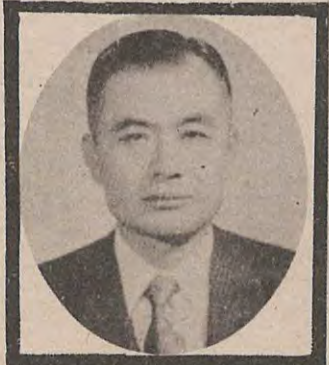
派	申請當時 住所	氏名	予約金額	領收額	殘金
提	大田市 三省一洞1206	完植	10,000원	10,000원	40,000원
按	道峰區 水岫3洞181-56	泰星	10,000	10,000	40,000
翼	冠岳區 奉天4洞174-203	泰龍	30,000	30,000	20,000
"	大田市 大興2洞452	英會	10,000	10,000	40,000
"	龍山區 山泉洞68-6	泰聖	20,000	20,000	30,000
"	江南區 岩寺洞546-1	鍾默	20,000	20,000	30,000

◎ 派譜未引受者 名單

大司	江南區 瑞草洞 무지개 A.P.T.5~211	正會	15,000	完
"	城北區 東山洞 4街219	在涇	15,000	"

大宗會 副會長

書默氏 逝去



大宗會副會長이시며 建國大學校 常任監事이신 正儀公派 書默께서 오랜 宿患으로 지난 二月 二十七日 午後十一時에 서울 城東區 華陽洞 自宅에서 享年 六十八歲로 別世하셨음을 告합니다. 書默 副會長께서는 咸南 端川 出身으로 일찍이 鄉里에서 反共運動에 加擔하여 活躍中, 六·二五의 戰亂을 겪어시고, 一九五二年에 單身越南, 建國大學校를 卒業하시고, 母校에서 敎務課長, 總務課長, 事務處長, 企劃調整室長 等を 歷任, 常任 監事로서 多年間 勤務하시면서, 校勢發展에 功獻한 바 있으며, 特히 大宗會 副會長과 正儀公派 會長으로서 大宗會館 建立, 大同譜 發刊 等に 誠力을 다 하였고, 端川郡民會長으로 同鄉人의 融和團結과 相互扶助 等으로 親睦을 圖謀하는데, 一生을 바쳐 왔습니다.

△麗朝忠臣▽

高麗朝 忠臣의 代表的인 人들로 杜門洞 七十二賢을 들 수 있을 것이며, 杜門洞은 京畿道 光德面 光德山의 西쪽 기슭에 있다.

西紀 一三九二年 壬申 七月 十六日에 李成桂가 王으로 推戴되자, 高麗朝의 臣下 七十二人은 「不事二君」을 盟誓하고, 開城의 東西쪽 고개(至今의 不朝峴)에서 官服을 벗어 걸고 光德山(杜門洞)으로 들

가자서 草履를 치고, 고사리를 캐어 먹다가 餓死도 하고, 自盡도 하였는데, 李成桂가 그들을 包攝코져 가진 手段을 다 했으나, 끝내 不應하며 그곳에 放火하자 모두 타죽고 말았다.

◎靖節班

後日에 李成桂가 이 附近을 지나다가 遺蹟地를 보고, 「高麗忠臣不朝峴」이라는 碑를 세웠고, 英祖大王은 一七五一年 辛未 九月에 「勝國忠臣今焉在 特堅其洞表其節」이라는 碑를 御筆 御製로 세우고, 그 陰記에는 「崇禎紀元後百二十四年 辛未秋追感杜門前朝忠臣七十二人節命錄用其孫堅碑洞中 寔子即祚二十七年也」라 하고, 그곳에 表節祠를 세우고, 그 節介를 殉節·抗節·靖節의 三種으로 區分해서 年齒順으로 位牌를 奉安하였는데 殉節班十七·抗節班三十一·靖節班七의 五十五名과 그밖에 그 姓名이 傳하지 않은 一七賢이다.

◎相臣(四人)

그러나 우리 安東金氏는 七十二賢中에는 한 분도 없으나 表節祠에는 그 七十二賢 外에도 李朝에 不服한 忠臣을 한 批에 奉安할 때, 抗節班과 靖節班에 各一名씩 并享되었다.

◎抗節班

金士廉·忠烈公의 玄孫이며, 奉翊大夫 副知密直司事 蔭의 第二子로, 字는 公直, 號는 梧隱이다. 일찌기 學文에 뜻이 깊어, 文詞가 豐富하고 氣節이 堂堂

하었고, 登科하여 門下侍郎, 按廉使를 지내었다. 圃隱 鄭夢周·牧隱 李穡 같은 大儒와 交遊하시면서, 麗末의 亂政을 陣諫해 오시다가, 李成桂가 登極하자, 淸州 梧根村(지금의 淸原郡 梧倉面 慕亭里)에 隱居, 李太祖가 左司諫으로 數次 불렀으나, 끝내 不應하시고, 賓客을 맞지 않고, 漢陽을 向해 앉지 않으셨다. 臨終에 遺言하시기를 「내子孫으로서 高麗에 任官한 者는 李朝에 나가지 말고, 그렇지 않는 者는 버스를 해서 新王을 도우라」하시고, 또 「내가 죽거든 鎭은 山中에 葬事하되, 封土를 하지 말고, 石物도 세우지 않음으로서 누구의 무덤이란 것을 남들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다.

九二年에는 여러 將相들과 함께 李太祖를 推戴하여, 李朝를 開國, 門下侍郎 贊成事와 判尚瑞司事·兵曹典書 등을 兼任하시시고, 開國一等功臣에 策勳, 上洛伯에 封해졌다. 또 一次 王子의 亂에 功을 세워 定社功臣이 되시고, 登極使로 明나라를 다녀와서 左政丞이 되시고 府院君에 封해져서 致仕하셨다. 諡號는 翼元公이시며, 太祖廟에 配享되시고, 耆老所에 追入, 不祧를 命하였다.

金 碩·翼元公 士衡의 曾孫이며, 同知中樞府事 宗淑의 아들이다. 字는 可安, 號는 雙谷이시며, 世宗庚午(一四五〇)에 文科에 及第, 集賢殿 修撰이 되었다. 成三問·崔恒·申叔周 등과 같이 文宗의 寵愛를 받았으며, 一四五五年에 世祖가 王位에 오르자, 司藝가 되었다.

宗反正에 參與, 靖國功臣이 되시고, 左議政을 거쳐 一五〇一年(中宗 五)에는 領議政이 되었다. 諡號가 文敬公이시다.

金自點·翼元公의 八代孫이며, 文靖公의 五代孫으로 字는 成之, 號는 洛西이시다. 蔭補로 兵曹佐郎이 되었으나, 光海君 末年에 大北派에 依해서 쫓겨나셨다. 一六二三年에는 李貴·崔鳴吉 등과 같이 反正을 꾀해, 弘濟院에서 李适의 軍과 合流하여, 光海王을 몰아내고 仁祖를 推戴, 同副承旨에 特進되고, 靖社功臣 一等에 策勳되었다.

一六三六年에는 都元帥가 되었으나, 丙子胡亂을 맞아, 免山戰鬪에서 參戰한 罪로 門外驅送을 당했고, 一六四〇年 昌君에 封해 지었다.

世祖와 廢宗實錄 編纂에 參與하였고, 梁談之·徐巨正 등과 같이 東國通鑑을 편찬하셨는데, 諡號는 文悼公이시다.

金 澣·按廉使公의 七代孫이며 安原君 公亮의 아들이다. 一五三二年(中宗 一〇) 辛卯에 進士가 되시고 一五三九年 己亥에 文科別試에 壯元, 三司湖堂을 거쳐 春坊銓郎, 舍人 檢詳을 歷任, 大司成, 大司憲을 지내시고 吏曹參議에서 關

北, 京畿道 御史, 全羅·黃海 監司, 漢城左·右尹과 吏·戶·兵·刑·禮曹의 參判과 兩館提學을 지내셨다. 一五六三年(明宗 一八)에는 宗系辯誣使로 再次 明나라에 가셨으나, 그해 七月에 燕京(平京)에서 病卒하셨다. 光國功臣에 策勳되고, 禮曹判書와 兩館大提學에 追贈되시고 光山君에 封해져 不祧를 命하였다. 諡號는 文端公이시다.

金弘度·書雲觀正公 綬의 六代孫이며, 東阜 魯의 아들 이시니, 字는 重遠, 號는 南匡, 또는 南峰이시다. 一五四

六年(明宗 一) 丙午에 進士試에 壯元, 生員 第五人 合格後 二年만에 別試文科에 壯元하셨다. 鎔郎으로서 中書湖堂을 거쳐 典翰으로 있을 때, 尹元衡이 僞으로서 正室로 삼은 事實을 黨論으로 提起함에, 尹元衡이 口實로 罪를 만들어 甲山에 流配中, 그곳에서 卒하시니 享年 三十四歲였다. 後日에 子貴로 領議政에 追贈되었다.

◎湖堂(五名)

湖堂은 讀書堂을 고쳐 부른 이름이다. 讀書堂은 朝鮮 四代 世宗大王이 藏義寺를 集賢殿의 學者들에게 내어 주고 讀書하도록 命하면서 붙인 이름이며, 成宗이 讀書堂을 龍山으로 옮겨 세우면서 湖堂이라 하였는데, 有望한 젊은 學者들을 選拔해서 賜 暇讀書를 시켜, 人材를 養成하는 機關으로 湖堂에 들어 가는 것을 가장 榮光으로 생각하였다.

金 瞻·南匡 弘度の 아들 이시다. 字는 子瞻, 號는 荷塘이며 退溪 李滉의 門人이다. 一五七六年(宣祖 九) 丙子에 別試文科에 合格, 內翰銓郎으로 湖堂을 거쳐 校理에 이르렀으나, 知縣監으로 左遷하셨다가 一年만에 享年 四十三歲로 卒하셨다. 公은 荷谷 許葑·荷衣 洪 迪과 더불어 唱酬하였고, 中國에서는 이를 三荷學士라 하였다.

金 緞·提學公 益達의 九代孫이며, 忠武公 時敏의 養子이시다. 字는 士精, 號는 南峰이시니, 一五九七年(宣祖 三〇) 丁酉에 調聖文科에 及第, 鎔郎으로 湖堂을 거쳐 三司副學, 吏曹參議, 慶尚監司를 歷任하셨다. 特히 易學에 能하시서, 仁祖改玉 때에는 沈器遠의 請으로 舉事의 成敗와 날짜를 定해 주셨고, 慶尚監司在任中에는 安東 忠烈公 先祖陵所의 일로 가셨다가 安東 巡所에서 瘧疾로 病卒하셨는데 「花山騎牛客頭戴一枝花」의 考終詩가 傳하고 있다(本會報 五·六號「傳說」參照)

清廉한 官員으로서, 議政府 六曹·京兆의 二品以上 堂上官·司憲府·司諫院의 首職들이 薦擧해서 議政府의 左·右參贊, 吏曹와 禮曹의 堂上官이 會議啓蒙해서 選定된 사람으로 清白錄에 記錄된다. (다음 호에 계속)

清白吏(五名) 清廉한 官員으로서, 議政府 六曹·京兆의 二品以上 堂上官·司憲府·司諫院의 首職들이 薦擧해서 議政府의 左·右參贊, 吏曹와 禮曹의 堂上官이 會議啓蒙해서 選定된 사람으로 清白錄에 記錄된다. (다음 호에 계속)

六代孫이며, 東阜 魯의 아들 이시니, 字는 重遠, 號는 南匡, 또는 南峰이시다. 一五四

贊助人名單

- 壹萬圓 提學公派 在政(永同)
壹萬圓 都評議公派 石秀(大邱)
壹萬圓 翼元公派 泰珍(東豆川)
參萬圓 山淸郡宗親會
壹萬圓 翼元公派 昌成
貳萬圓 按廉使公派 在璜(漢江路)
壹萬圓 提學公派 道應(天原)

◎獎學基金

- 參百萬圓 翼元公派 亨會(淸州)
壹拾萬圓 按廉使公派 恩年(淸州)

◎訃告

●大宗會 理事 都評議公派 熙國氏 大人(諱 菑秀)은 老患으로 지난 一月十六日(陰 十一月二十六日) 義城郡 點谷面 沙村洞 自宅에서 壽 八十四歲로 別世

●大宗會 理事이며 郡事公 派會長인 在錫氏 閣夫人 昌寧成氏는 宿患으로 지난 二月二十八日(陰 一月九日) 坡州郡 汶山面 仙遊里 自宅에서 享年 五十六歲로 別世.

●大宗會 理事로서 大宗會 創立과 發展에 至大한 貢獻을 하였고 平生을 宗事에 努力해 오신, 郡事公 派在潤氏께서 지난 三月十五日(陰 一月二十四日) 平澤郡 西炭面 寺里 自宅에서 壽 八〇歲로 別世.

(원호에서 계속)

그러나 王四十六年 동안은 各地方에 蝗災가 發生 하고, 가뭄이甚해서 道적이 盛行함 으로 各處에 使者를 보내서 이를 按撫하고 또한 救濟하는 데 努力하였다.

王七年 正月에 王太子 仁謙이 死亡하였다. 王은 이를 몹시 哀痛하여 惠忠이란 諡號를 내리고, 次子 義英을 다시 太子로 封했으나 二年 후에 또 죽고 말았다. 王은 이로 말미암아 그해에 奉恩寺를 新築하고, 長男 惠忠의 아들 俊昌을 太子로 封하였다.

그 후에도 每年 旱害가 繼續되어 飢饉과 疾病의 救荒에 힘쓰다가, 서기 七九八年 十二月二十九日에 昇遐하니, 在位 十四年이며, 遺命에 依해서 奉德寺 南쪽에서 火葬하고 諡號를 元聖이라 하였다.

王은 文治에 뛰어난 英主였고, 親히 窮達之辯으로 身空 司腦歌를 지었다.

妃는 淑貞王后 金氏니 角干 神述의 딸이다. 子: 仁謙·義謙·禮英

◇十九世 禮英

벼슬은 伊湊 匠干이며, 孫子 梯隆이 王位에 올라서 惠康大王으로 追尊되었다.

◇二十世 均貞

벼슬이 大阿湊이다. 惠德王 四年에 上大等 侍中으로서 그 해 熊川都督 金憲昌이 叛亂을 일으키자, 軍將이 되어서 이를 討平하였다. 그러나 興德王이 薨하자 無嗣하여 繼位를 두고 조카 梯隆과 다투다가 金明·利弘等에게 遇害되었다. 아들 佑徵이 即位하여 神武王이 되고 成德大王으로 追尊되었다.

妃는 眞嬌夫人 朴氏니 後日에 憲穆太后로 追封되었다. 子: 佑徵(神武王)·誼靖(憲安王)

◇二十一世 神武王

諱는 祐徵이다. 西紀八三九年(惠德王 四年) 四月에 아버지 均貞과 함께 公州 地方을 平定한 功勞로 侍中이 되었는 데, 興德王이 죽자, 均貞을 도와, 王位에 올리고져 했으나, 亦是 王座를 노리는 梯隆(僖康王)에게 敗走하였는데 僖康王 二年(八三七) 四月에는 “王을 怨望했다”는 理由로 僖康王의 便인 金明과 利弘等이 謀害를 꾀한다는 消息을 듣고, 禍가 미칠것을 두려워 하여, 家族을 거느리고 黃山津口로 避했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清海津으로 갔다. 그곳에는 清海津 大使 弓福(張保阜)가 있었는 데 모든 問題를 그에 依托하였 드니, 그해 六月에는 姑從 妹夫人 禮微과, 阿湊 良順이 弓福을 助하고 清海津을 찾아왔다. 그러나 僖康王 三年에는 均貞을 죽인 金明과 利弘이, 叛亂을 일으켜 僖康王을 自決케 하고 金明이 스스로 王位에 오르니 이가 第四十四代王인 閔哀王이다.

曙源世系(3)

이제 나는 將軍의 軍士를 빌려서 父君의 怨讎를 갚으려 한다”고 하니 弓福이 이를 承諾함으로, 그 軍士 五千名을 거느리고 金陽을 平東將軍으로 삼고, 閔長·張弁·鄭年·駱金·張建榮·李順行 等과 더불어 武州 鐵冶縣에서 크게 이었다.

한편 禮微 등은 宮中에 있던 閔哀王의 殘黨을 깨우쳐 掃蕩하고, 西紀 八三九年 四月에 禮微 등의 推戴를 받아 王位에 오르니, 이가 新羅 第四十五代 神武王이다. 神武王이 即位하자, 祖父 禮英을 惠康大王으로 追尊하고, 母后를 憲穆太后로 높였다. 또 王子 禮應을 太子로 冊封하고, 清海津 大使 弓福을 感義軍使로 封하고, 食邑 千戶를 주었다. 이렇듯 反正에 成功한 王은 그해 七月에 不幸이도 逆徒 利弘의 化살에 등을 맞은 功을 꾸어 등장인 생기고, 이로 인해 苦生하다가 七月 十三日에 昇進하니 在位 一年이다. 陵은 兄弟山 北쪽이며 妃는 眞繼夫人인 定宗王后, 또는 眞宗王后로도 傳한다. 子: 文聖王·英元·興光·益光

◇二十二世 文聖王

諱는 慶膺이니 서기 八三九年 七月에 神武王의 뒤를 繼立하니 第四十六代王이다. 王은 即位한 即時로 罪囚을 大赦하고, 禮微을 上大等에 올리고 清海津 大使 弓福(張保阜)에게는 “神考를 도와 先祖의 巨賊을 討伐하였으니, 그 功勞를 어찌 잊으랴”하며 鎭海將軍을 삼고, 衣服을 下賜하였다. 또 先王이 일찌기 “弓福의 말을 王妃로 맞겠다”고 한 遺志에 따라, 次妃로 맞고 저하였다. 그러나 “弓福은 島人이라”는 廷臣들의 諫으로 말미암아 實行하지 못했으니, 弓福은 이에 對해서 큰 怨恨을 품고, 王의 八年(八四六)에 逆誅를 謀議하였다. 그러나 이 事實을 안 朝廷에서는 이를 平定코저 하였으나, 後患을 念慮하고 있었는 데 마침 武州의 勇士 閔長이 朝廷의 許諾을 받아 이를 討平하려고 清海津으로 떠났다.

이 때 清海津에 들어간 閔長은 나라에 叛逆한 것 처럼 말하고 弓福의 信任을 받았고 또 아무런 武器도 없는 閔長은 弓福으로 부터 큰 宴席에 招待되어, 上席에 앉아 두 사람은 서로 술을 勸하다가 마침내 그 興이 度가 넘어서, 弓福이 몹시 술이 醉하였을 때 閔長은 弓福의 칼을 뽑아 刺殺하였다. 그리고 弓福의 摩下를 모두 說得시키니 아무 動搖도 없이 모두 屈服하였다. 이리하여 王 十三年 二月에 清海津을 罷하고, 그곳 住民을 碧骨堤(金堤)로 옮겨서 살게 하였다. 그해 四月에는 入唐使 元弘이 佛經과 아울러 佛事를 가지고 왔으므로 王이 郊外에까지 나가서 그를 맞았다. 또 그보다 앞서 王 九年(八四七)에는 平海殿과 臨海殿을 修理하고, 그해 十一月 九日에는 伊湊 金武의 謀叛을 平定하였다. 十四年 七月에는 鳴鶴樓를 修理하고, 十七年 正月에는 使臣을 보내서 西南州郡의 百姓을 慰問하였다.

◇二十五世 實虹

벼슬이 角干이며, 或은 伊湊이라고 한다. 孫子 傳가 王位에 오르면서 懿興 大王으로 追尊되었다. 子: 億廉·孝宗

◇二十七世 孝宗

三國史記 孝女 知恩篇에 依하면 孝宗은 少年時節에 依千餘名을 거느린 花郎이 있는 데, 孝女 知恩을 중으로 삼고 그 主人에게 몸값으로 殺食 十餘石을 辨濟하고 知恩으로 하여금 奴婢를 免하게 하였고, 다시 知恩에게 粗 百石과, 衣服을 주어 살게 하였다. 이 所聞을 들은 眞德女王은 이를 嘉賞히 생각하여 侄女인 惠康王의 公主로 하여금 婚姻케 하였고 벼슬은 大阿湊에서 侍中으로, 다시 伊湊으로 昇進하였다. 아들 傳(敬順王)가 王位에 올라서 神興大王으로 追尊하였다. 妃는 桂娥夫人 金氏니 惠康王의 公主이다. 子: 敬順王(諱傳)

◇二十三世 安

벼슬이 伊湊으로 上大等을 지냈다. 配는 元仁夫人 朴氏니 達羅尼師今의 遠孫인 朴景輝를 王位에 올리고, 이가 第五十三代 神德王이며, 이로써 朴氏는 七二八年만에 비로소 王位에 오르게 되었고, 神德王의 뒤를 이어 아들 景明王이 繼承하고, 다시 景明王의 아들 景哀王이 이어 받았다. 景哀王 四年(九二七) 十一月에 後百濟의 甄萱이 新羅의 王都인 慶州까지 侵入하였다. 이 때 王은 鮑石亭에서 늘 이를 하든 중이어서 甄萱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甄萱는 景哀王을 脅迫해서 自殺케 하고, 王의 姨從弟인 金傳을 權知國事로 삼게 하고 돌아갔다. 이로서 金傳은 新羅 第五十六代王으로 即位하였고, 甄萱이 돌아간 후에 王은 前王의 屍體를 收拾해서 西堂에 모시고 群臣과 더불어 痛哭하면서 景哀라 諡號하고, 南山의 蟹目嶺에 장사지냈다. 이때 高麗太祖는 使臣으로 하여금 弔祭하였다. 王 元年(九二七) 十一月에 王은 先考를 追尊하여 神興王으로, 母后 桂娥夫人을 王太后로 삼았다. 그러나 後百濟의 甄萱는 部分的으로 끊임없이 侵犯해 왔고, 邊方의 城主들은 高麗에 羅續 投降하는 狀態에 놓이고 말았다. 金傳을 王位에 올린 甄萱은 그해 十二月에 大木郡(漆谷·仁同)에 侵入하여 田野에 쌓인 곡식을 모두 불태웠고, 王의 二年 正月에는 高麗의 將軍 金相이 賊 興宗과 草入城(陝川 草溪)에서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고 戰死했고, 五月에는 康州(晉州)將軍 有文이 甄萱에게 降服하였다. 그해 六月에는 큰 地震이 있어서 많은 被害를 입었으며, 八月에는 甄萱가 將軍 官所를 시켜서 陽山에 築城을 하므로 高麗太祖는 命旨城將軍 王忠에게 命하여, 이를 擊退시켰다. (다음호에 계속)

◇二十四世 敏恭

벼슬이 伊湊이었으나, 惠康王 六年(八八〇)에 又謙의 뒤를 받아 侍中이 되었다. 子: 實虹

◇二十五世 實虹

벼슬이 角干이며, 或은 伊湊이라고 한다. 孫子 傳가 王位에 오르면서 懿興 大王으로 追尊되었다. 子: 億廉·孝宗

◇二十八世 敬順王

諱는 傳이니 新羅 第五十六代王이다. 서기 八九七年(眞聖女王 十一年)에 誕生하여 朴景哀王의 뒤를 이었다. 新羅 第五十一代 眞德女王은 失政을 하여 各處에서 群臣이 割據하게 되니 女王은 그 責任과 無能함을 느끼고 十一年에 庶조카인 蟻에게 讓位하니 이가 곧 孝恭王이다. 그러나 孝恭王의 時代에도 安定을 期하지 못하고, 弓裔와 甄萱의 勢力이 強大해지고 있었는데, 孝恭王이 昇遷하고, 王의 妹夫이며 第八代王인 阿

金昌成
서울·冠岳區奉天五洞四五八-13
電話 事·七二〇-1877-1
自·八七八-13385

按廉使公派
金在璜
서울·龍山區 漢江路 3街 63-165

記念 禮巡域瑩祖列
會親宗郡清山氏金東安
宜龍會 相在龍 代表

乙未(肅宗四一...一七一五) 八月初九日 士林이 모두 鳳山書堂에 會集하였는데, 注書 趙錫晦가 尙山(尙州)를 다녀와서 澗水書院과 孝谷書院의 復享 議案을 傳達함으로써 即時問事(連絡)儒生으로 金相默을 議定, 이를 孝谷書院에 보냈는데, 이때 山長은 生員 趙宜陽·齋任有司는 士人權 護와 金始源이 있다.

勿溪書院日記(1)

令이 있었으니 이는 大概, 新設한 鄉賢祠와 賜額書院에 追配者에 限하였고, 처음부터 鄉祠의 追配에 대해서는 擊論한 바 없었는데도,不拘하고, 當時에 本州에서는 國家命令의 申嚴한 말과 奉行함에 急急하여, 그 內容을 詳細히 살펴 보지 않고서, 當日에 士林이 惶惶措措한 마음으로 遺言을 하고도 敢히 討論도 못하고, 即時 召喚하여 兩祠의 追享四位의 位板을 같이 撤去하였다.

勿溪書院은 李朝 顯宗二年(二六六) 庚子에 鶴沙 金先生이 士林을 振興하여 醴泉의 물한마 을(水閣坊)에 卽院, 忠烈公의 位牌를 奉安하여 組豆之禮를 行하다가, 顯宗八年(二六八)에 鶴沙先生께서 別世하시니, 一六七〇年 庚戌에 先生을 配享하였고, 이어서 壬子년에는 다시 士論으로 楊若齋(諱 九容)와 虛白堂(諱 揚震)의 兩先生을 追配하였다.

兩祠는 賜額院이 아니고 鄉祠이 옴니다. 事目이 分明하고 條件이 各異하니 於此於彼間, 모두 關係되는 바 없는 즉, 輕率한 妄發로 輕率히 잘못 撤去하였 음은 朝廷의 旨로 先賢의 位板을 撤去하는 穩當치 못한 일로서, 士林의 罪가 아닐 수 없으며, 悚懼 하고, 未安한 마음과 痛恨스럽고, 抑鬱한 마음 可히 禁치 못합니다.

兩祠는 賜額院이 아니고 鄉祠이 옴니다. 事目이 分明하고 條件이 各異하니 於此於彼間, 모두 關係되는 바 없는 즉, 輕率한 妄發로 輕率히 잘못 撤去하였 음은 朝廷의 旨로 先賢의 位板을 撤去하는 穩當치 못한 일로서, 士林의 罪가 아닐 수 없으며, 悚懼 하고, 未安한 마음과 痛恨스럽고, 抑鬱한 마음 可히 禁치 못합니다.

九月 初六日... 山長이 同樞金瑞一과 더불어 本府에 들어 가서 禮曹의 題辭를 官家에 바치고 復享할 뜻을 稟議한바, 題辭에 말하기를, "上司의 德音이 이미 이와 같은 분부 이시니, 말한 것도 없이 이는 士林의 欠闕之事라, 이를 속히 舉行함이 마땅하리라." 하였다.

前 後 兩監司 題辭의 內容은 크게 慨歎하지 않을 수 없으며, 當時의 잘못 毀撤된 일은 確實히 痛痛하고 抑鬱한 줄을 알면서도 每樣 題辭 끝에는 오히려 快諾을 忌避하는 것은, 오로지 禮曹에서는 本來 國內의 禮法을 이미 管掌하는 곳으로서 營門에서 스스로 處決하기에는 未安한 생각이 內包되어 있으니 다시 說되려 생각하옵건대, 一國의 大小 禮法은 하나라도 禮曹에서 나오지 않음이 없고, 八道의 組豆之祠는 모두가 禮曹의 所屬되지 않음이 없는데, 儒林의 잘못 된 禮는 本曹에서 改正하지 않으면 누가 이를 是正하며, 士林의 未安을 禮曹에서 고쳐 주지 않으면 누가 이를 고쳐 오리까?

初九日... 아쉽게도 縣內 士林에게 公文을 發送하였고, 寄別을 듣고 모두 卽時에 달려 왔다. 原任 金致瑞와 金垞이 또한 到着하여 堂會를 開催하니 時到가 무릇 十九名이었다. 마땅히 公事員에 金垞·位板有司 權思赫·權秘·大象緯를 薦望하고 泥田村에서 밤나무(栗木)를 斫伐케 하였다. 留宿한 人員이 十七名이었다.

宗 告

一九八五年度 通常會費 納付의 件
一九八五年度 通常會費 定款 第六章 第二十五條의 規定에 依하여 通知하오니 送附한 「대체용지」에 住所, 姓名, 金額을 記入하셔서 郵遞局에 提出하시면 送金料는 들지 않습니다.

惡德商人團東에 對한 警告

本報 創刊號 發行時에 「惡德出版業者에 對한 警告」를 告示한 바 있어오 나, 아직도 如斯한 行爲가 根絶되지 않을 뿐 아니라, 現今에 와서는 더욱 그러한 行爲가 盛行하여 安東金氏大宗會나 新羅汎金氏大宗院에서 刊行, 或은 轉旋한 양 하면서, 大宗會 任員의 姓名을 調査해서 電話로 注文을 받거나, 訪問 强賣를 하고 있는 事實이 있어오나, 이 點 特別히 留意해서서 眩惑됨이 없게 하시기 바라며, 大宗會나 新羅汎金氏大宗院에서는 絶對로 그러한 販賣事業을 하지 않는다는 事實을 闡明하는 바입니다.

原稿募集

本報 發展을 위하여 江湖諸宗의 玉稿를 歡迎하오니 다음 要領에 依하여 作成 送附해 주시면 採擇登載하겠습니다.
一、論文 崇祖陸族과 倫理道德에 寄與되는 內容
一、各派宗中 및 宗親會에서의 行事에 對한 經過記事
一、宗親中에서 있었던 美談佳話 및 善行 職位의 陸進이나 異動事項, 海外旅行關係 逸話
一、先祖에 關係되는 傳說
一、其他 宗親들에게 알리고 싶은 事項